

‘충성! 동자승, 평화지킴이로 명 받았습니다!’ 5월 8일 조계사 동자승 단기출가학교에 출가한 동자승들이 JSA를 찾았다. 군장병들과 함께 경례하는 모습이 천진난만해 보인다.


JSA안보교육관을 둘러보는 동자승들.


발원문을 낭독하는 본연 스님과 성연 스님.


평화의 종을 타종하는 동자승들.

동자승의 평화 나들이 “통일 좋아요”

조계사 동자승 단기출가학교 JSA 방문

파주 JSA=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부처님은 모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는 조계사에서 지내며 그렇게 부처님을 닮아가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저희처럼 노력하여 부처님을 닮아 우리 모두 화합하여 평화롭기를 바라옵니다.”

남북 정상이 함께 한반도 평화를 논의한 남북공동경비구역(JSA)에 낭랑한 동자승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동자승들은 JSA법당 무량수전 앞마당을 뛰어 다니며 천진난만한 웃음꽃을 피워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5월 8일 동자승 단기출가 학교 프로그램 일환으로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했다. 이번 동자승들의 JSA법당 방문은 최초이기에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방문에는 조계사 선림원장 남전 스님과 기획국장 제환 스님, 조계사 신도회 부회장 함정희, 송영란 씨 등 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남북 대화로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공동경비구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 귀순병사 관련 남북간에 총격사건이 발생하는 등 삼엄한 경비태세가 이뤄지고 있었던 차였다. 2대의 버스에 나뉘어 탄 동자승들과 신도 대중이 민통선 초소에 도착하자 신분증 검사가 이뤄졌다. 낯선 모습에 동자승들은 인솔하는 스님의 손을 꼭 잡았다.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공동경비구역 내 안보교육관, 정훈장교의 간단한 안내와 함께 안보영상이 흘러나왔다.

한국전쟁부터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등 생전 처음 접하는 안보영상을 본 동자승들의 눈은 동그랗게 변했다.

교육을 받고 나서는 동자승들 앞에는 JSA의 상징인 장병 마네킹이 서 있었다. 동자승들은 흥미롭게 군복을 입은 마네킹을 만졌다.

“스님, 이건 뭐예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아저씨들이 입는 옷이에요.”

호기심 어린 질문에 답하는 스님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진다.

이어 일행은 인근 JSA법당 무량수전으로 향했다. JSA법당은 2017년 3월 31일 낙성된 JSA내 대표적인 군법당이다. 무량수전과 함께 625관의 평화의 종이 있는 종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장병들의 영가를 비롯해 참전 16개국 전사자 영가를 기리는 위패가 모셔져 있다.

무량수전 앞 아미타불 앞에서 동자승들은 헌화를 위해 나란히 섰다. 천방지축으로 뛰어 놀던 동자승들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지했다.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선열을 기리는 헌화와 함께 ‘화합과 평화의 발원문’ 봉독이 진행됐다.

JSA법당서 순국선열 추모
안보교육 및 전망대 방문
군장병들 선물도 전달해

“부처님처럼 우리 모두 화합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발원문을 낭독하는 7살인 본연 스님과 6살인 성연 스님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묻어났다. 이에 대해 조계사 선림원장 남전 스님은 “공동경비구역에 오는데도 아주 얌전하게 있었다. 또 다들 군인 아저씨 보면 박수도 쳐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며 “마음의 평화, 나아가서 사회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몸소 우리 동자스님들께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전 스님은 “지난해 무량수전 낙성 당시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평화의 종을 타종했다. 그 염원이 이어져서인지 1년 만에 정상회담이 열리고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동자승들의 이번 JSA방문과 평화기원으로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까지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자승들은 이날 방문을 위해 직접 그린 ‘화합과 평화의 그림’과 ‘통일 연등’을 JSA법당에 전달했다.

‘군인 아저씨 감사합니다’ ‘동굴동굴 동자승’ 등 글과 그림에 선물을 전달받은 JSA법당 주지 여진 군승법사와 군장병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여진 군승법사는 “판문점에서 조계사 신도님들과 어린 동자스님들이 오신 것이 처음일 것”이라며 “희망과 사랑, 평화의 기운을 더 밝게 키우고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자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마련한 것 같다. 동자 스님들과 조계사 대중의 방문에 남북의 화해와 평화가 한걸음 앞당겨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진행된 군장병들과의 평화의 종 타종에서 동자승들은 서로 종각으로 향했다. 군장병들과 스님, 동자승들이 힘을 합쳐 치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통일이 될 거 같아요?”

“몰라요. 그런데 좋아요.”

“저는 더 좋아요.”

활짝 웃으며 통일에 대해 동자승들의 모습에서 밝은 미래가 엿보였다. 한편, 이날 동자승들은 북한지역이 보이는 도라산 전망대 참관을 끝으로 JSA 방문을 마무리했다.

